

## 어린이 책꽂이



▲ 세계사일주=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 시각에서 풀어쓴 청소년을 위한 역사책이다. '오대양 육대주의 어제와 오늘'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오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겨레·1만2천원〉

▲ 동물원에서 생긴 일=흥미진진한 방식으로 동물원과 관련된 직업과 동물원의 역할을 소개한다. 어린이

들에게 생소한 영장류, 곤충류와 양서류 등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주니어 랜덤·9천500원〉

▲ 짐=플라스틱과 같은 값싼 화학재료에 밀려 지금은 가족의 사료로 쓰이는 짐에 관한 이야기

를 담았다. 우리 짐 문화에 담긴 소중한 가치들을 새롭게 알게 된다.

〈사계절·9천800원〉

▲ 날마다 뽀끄랭스=섬을 배경으로 엄마와 떨어져 할머니와 지내는 열두 살 소녀의 성장 이야기. 주인공 민들레는 재훈한 엄

마 때문에 떨어져 살지만 할머니와 섬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꾸듯하게 생활한다.

〈문학과 지성사·8천500원〉

▲ 탈출 수학나라=어린이들이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수학의 원리와 재미를 알려준다.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오일러 등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8명의 수학자가 등장한다.

〈창비·1만원〉

## 에밀레종에 정말 아이를 넣었을까

## 에밀레종의 비밀 성낙주 지음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은 가슴을 물리는 애걸한 종소리 때문에 '전하의 심풀'·'신종(神鐘)'이라는 수식어들이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종소리에는 잠혹한 설화가 있다고 알려져왔다. 펄펄 끊는 소리를 어린 아이를 넣어서 종을 완성했고, 이 아이의 한이 종소리에 서려 '어미 때문이야'라고 애처롭게 외치는 것이 '에밀레~'하고 들린다는 것이다. 어미가 제 자식을 뜨



에밀레종은 단순히 예술작품이 아니라 당대 신라인들의 소망을 상징했다. 성덕대왕신종, 봉덕사종으로 불리는 에밀레종은 국보 제29호로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거운 도가니에 던졌다 는 이야기가 과연 사실일까.

중학교 교사이자 석굴암 전도사로 통하는 저자 성낙주씨

가 에밀레종을 둘러

싼 각종 담론들에 의문을 던지며, 그간 자신이

발표했던 에밀레종에 관한 논문

두 편을 토대로 '에밀레종의 비밀'

을 평냈다.

책은 총 4부로 구성, 에밀레종에 담겨있는 기호학적인 의미를 분석해

해 에밀레종 전설에 감춰진 '폭력'

을 신라의 정치적 상황에 비춰 해석

했다. 또 중국종에서 에밀레종까지

종의 진화과정을 보여주고 신라종의

의 역사도 꼼꼼히 살폈다.

저자는 '에밀레종 전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종을 만들 때 진짜로 아이를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당대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에밀레종과 읽힌 기막힌 이야기는 무얼왕계 신라 중대 왕실의 궁중비극을 고발하는 것이며, 에밀레종은 한반도를 통일한 신라 문무왕이 무치(武治)가 아니라 예악(禮樂)을 중심으로 문치(文治)를 실현하겠

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저자는 성덕대왕신종 명문(銘文)과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각종 자료를 통해 끌어온 용광로에 던져진 어린아이의 신라시대 권력다툼에서 어린아이에 헌신된 혜공왕을, 제 아이를 제물로 바친 어미는 혜공왕을 취락펴며 섭정을 했던 대비 만월부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즉 에밀레종 설화는 권력투쟁에서 억울하게 헌신된 혜공왕을 동정하고, 만월부인 등 외척 세력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비난했다는 것이다.

또 에밀레종 양식을 보면 대나무 모양의 유통에 용이 두 다리를 앞뒤로 험하게 뻗어 물살을 가로질러 오는 형상이 있는데 이는 문무왕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에밀레종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소리로 세상을 다스려라'고 유언했던 문무왕의 의지와 신라인의 소망이 담긴 신기(神器)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 기록에 의하면 신라 제35대 경덕왕이 그의 아버지였던 33대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에밀레종은 경덕왕의 아들인 혜공왕에 이르러서 완성됐다.

당시 신라 국왕은 종을 완성하기 위해 합금 기술을 가진 주종 박사들을 우대하며 이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에밀레종의 완성은 통일신라시대 연구·개발(R&D) 정신의 결정체였던 셈이다. 1천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에밀레종의 주조기법과 맑고 신비한 소리의 비밀은 세계적인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책에는 신라 왕실이 추구한 이념과 궤를 함께 하며 신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황룡사 9층탑, 사천왕사, 능지탑, 대왕암, 만파식적, 삼원사 등 신라의 심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풀어놓았다.

〈푸른역사·2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 권정생의 '우리들의 하느님'

5월은 기념일의 연속이다. 이번 5월에 기념해야 할 날이 더 생겼다. 5월 5일에 박경리 선생이 영면했다. 5일장을 치르고 한숨 돌리려는데, 소포가 날아들었다. 권정생 선생의 산문집 '우리들의 하느님' 개정판이었다. 아, 권정생 선생 1주기였던 것이다. 5월 17일.

권정생 선생은 '몽실언니'와 '강아지풀'의 작가, 즉 아동문학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아동문학가가 아니었다. 살아 있는 작가, 깨어 있는 정신이었다. 산업 문명의 전방위적 폭력을 페뚫어본 이 땅의 마지막 한 사람이다.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외치던 비폭력 평화주의자였다.

하지만 자연인 권정생의 삶은 참혹한 것이었다. 20대 초반 결핵에 걸린 이래, 그는 몸을 내려놓을 때까지 병고와 싸웠다. 하루에 원고지 세 장 이상을 매출 수 없는 체력이었다.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그 뒤로 50년을 더 살았다. 작고 낮고 힘없는 이 땅의 생명들에 대한 연민과 연대가 그의 목숨을 이어주었을 것이다.

'우리들의 하느님'은 1996년에 초판이 나왔다. 개정판은 1990년

## 땅에 담긴 '생명의 미래' 재확인

대 후반부터 2004년까지 발표한 산문과 시가 들어갔고, 지난해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직후 '녹색평론'에 실렸던 두 편의 추모글이 부록으로 실렸다.

생의 후반부, 그러니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선생의 목소리는 보다 분명해져 있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황포와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질타가 매서웠다. 9·11 사태 직후에는 미 국을 향해, 아니 우리 모두를 향해 '제발 좀 죽이십시오'라고 탄원하고 있었다.

내가 쳐온 만난 권정생의 책은 자전에세이 '오늘당이처럼 빙글면서'였다. 결핵균이 서식하는 몸을 이끌고 그가 찾았던 곳이 안동군 일직면 조밥동이었다. 그 마을 교회의 문간방에서 살면서 새벽마다 일어나 교회 종을 쳤다. 그리고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들의 하느님'은 한국 기독교 현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다. 선생은 한 세대 전, 거난하고 소박했던 시골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상하며 자신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 교회를 비판한다.

하지만 선생의 분노와 절망은 생명을 파괴하는 산업 문명을 지시하는 데서 나온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리고 골프장이 들어섰지만, 십 여 년 전만 해도 선생이 살던 마을은 오지였다. 평생 오지 를 떠나지 않았지만 선생은 '천리안'이었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일국체제로 뒤바뀐 국제 정세도 정확히 페뚫고 있었다.

선생은 "나는 고속도로를 쟁쟁 달리는 자동차들이 바그다드를 향해 폭격을 하는 전투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산업 문명의 핵심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다시 정독하면서, 다시 말해 땅과 농업에 담겨 있는 생명의 미래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선생의 1주기를 치렀다.

개정 증보판에서 이계삼 씨의 추모글 '이 땅 마지막 한 사람이었던 분'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한다. 이 씨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선생의 새로운 면모를 복원하고 있다. 선생은 마을의 스승이자, 천재였고, 어린아이였고, 천하의 '바람둥이'였다.

이문재<시인>

## 조선시대 여성 예술인들 이야기

## 붉은 비단보 권리예 지음



'뱀장어 스트', '꽃게 무감'으로 이상문화상과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권리예가 신작 장편소설 '붉은 비단보'를 평냈다.

오랫동안 예술적 자아를 가진 여성 예술가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저자는 이번 소설에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이자 현모양처의 대명사인 신사임당의 외외를 입은 '향아'라는 하구적인 여주인공을 탄생시켰다.

또 향아의 친구로 등장하는 가연과 초롱에게서는 허난설향과 활진이의 모습이 비치기도 한다.

작가는 "이 소설은 평전이 아닌, 어긋난 사랑을 안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자유로운 훈으로 현실과 화합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양반가 여인의 삶을 그린 작품"이라고 말한다.

이미 저자는 '고흐, 서른 일곱에 별이 된 남자', 그림 소설집 '사랑하거나 미치거나' 등 예술 관련 저서를 집필한 적이 있다. 〈이룸·1만1천7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위안부 소녀'故 강덕경 할머니 다큐

## 그림속으로... 배홍진 지음



열 다섯살의 나이에 위안부로 살아야 했던 고(故) 강덕경 할머니의 고단한 삶이 무명 작가의 독백을 통해 세상으로 나왔다.

자신을 '유령(大魄) 작가'라고 소개한 배홍진씨가 강덕경 할머니의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의 에세이로 담아 '그림 속으로 들어갈 소녀'를 평냈다.

저자는 MP3로 녹음된 강덕경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위안부 소녀'에서 멈춰버린 할머니의 흔적을 찾아 나누는 집 역사관, 국회 도서관, 할머니의 고향인 경남 진주, 한국영상협회 자료실 등 전국을 돌아다녔다.

또 강덕경 할머니가 직접 그린 '빼앗긴 순정' 등 12점의 그림을 토대로 15세 소녀가 '성노예' 생활을 하면서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 소녀의 꿈을 섬세하게 풀어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직(無職) 작가가 세상을 유령처럼 떠돌며 살다 떠난 한 여자의 삶을 연민하여 적어나간 상상 속의 디큐멘터리"라고 말했다.

〈멘토press·1만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HYUNJIN 투자의 빛이 되겠습니다!**  
**수완 신도시 현진에버빌**  
단지내 상가 특별 大 분양!

1단지 672세대 2단지 509세대

현진에버빌의 품격과 미래가치  
이제 단지내 상가로 이어집니다.

은행융자대출 최대 40% 지원!

역시! 단지내상가도 현진에버빌입니다!

- 1. 100M 이내 초·중·고교 초 근거리 인접
- 2. 수완 신도시의 미래가치와 프리미엄
- 3.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독점적 상권
- 4. 풍부한 배후 대단위 주거단지 입지



분양문의 062) 361-8022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분양사: (주)지엘지산업개발

## 부동산컨설팅 地友 우

봉선동 남구청앞 술뫼타운 상가 ☎ 062) 655-0063  
011-9809-9500

- ◆ 믿음,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 ◆ 광주·전남 전지역 정확한 권리 분석
- ◆ 10년간 경·공매 실전경험으로 철저한 수익성분석
- ◆ 투자자의 마음으로 고객을 상담하겠습니다.

\*부동산 체테크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누구

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과 과정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地友와 함께 직접 실무와 경험하는 자세

가 재테크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 남녀직원모집



대표 임근철

- 공인중개사
- 부동산 경·공매 분석사
- 부동산 권리 분석사
- 부동산 분양 상담사
- 초당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 수완지구

##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